

두 발로 감상하는 대도시 도보 관광②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을 비롯해 인천과 대구에서는 걸어서 돌아보면 좋을 명소들을 도보 관광 코스로 지정해 관광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항구도시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부산, 해외 문물이 유입됐던 인천, 골목 곳곳에서 옛 향취가 묻어나는 대구 등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도보 여행의 매력을 소개한다.

글 임동근 기자, 사진 및 지도 부산시청, 인천 중구청, 대구 중구청 제공

인천 근대역사 문화유산과 함께 떠나는 시간 여행

인천 중구청은 인천 차이나타운과 개항 시기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던 각국의 조계지,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 다양한 건축물들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돌아보며 체험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매주 화~일요일에 무료로 진행한다. 도보 관광 코스는 크게 인천 차이나타운, 근대 건축물 탐방 거리, 자유공원, 신포 문화의 거리 등으로 나뉘며, 각 코스마다 특별한 느낌의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중구청의 도보 관광 프로그램은 각 코스를 골고루 돌아볼 수 있도록 진행된다.

인천 차이나타운 인천역 맞은편에 위치한 인천 차이나타운은 현재 화교 800여 명이 중국 음식점과 기념품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해에만 관광객 215만 명이 방문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인천 지하철 인천역 광장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중국 웨이하이(威海) 시가 한중 우호 교류를 위해 인천시 중구에 기증한 '패루(牌樓)'가 방문객을 반긴다. 패루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차이나타운 도보 관광이 시작된다. 국내에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붉은빛의 화려한 분위기가 중국 어느 도시의 거리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중국 공예품과 액세서리, 중국식 외출복인 '치파오', 전통차, 골동품 등 중국 본토에서 들어온 흥미로운 물건들을 구경할 수 있다. 화교 학교인 중산학교 뒷담에 유비, 관우, 장비, 조조 등 '삼국지'의 주요 인물들과 명장면을 160면에 그린 150m의 대형 벽화도 특별한 볼거리이다. 이곳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단연 중국 요리이다. 자장면, 짬뽕은 물론 수제 만두, 월병, 꼬치구이 등 이색적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중국 식당들이 즐비하다. 한국 최초의 자장면 집이었던 '공화춘' 건물도 코스 내에 자리하고 있다.



근대 건축물 탐방 거리 인천 차이나타운이 끝나는 지점부터 남동쪽으로 이동해가며 동쪽의 탐동성당에서 마무리하는 코스다. 100여 년 전쯤으로 시간을 되돌린 듯한 분위기의 거리를 따라가면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동그런 돌을 올린 후기 르네상스풍의 '일본 제1은행' 건물이 나타나고, '인천 개항장 근대 건축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본18은행'에 이어 프랑스 건축물처럼 발코니와 지붕창이 있는 '일본58은행'을 볼 수 있다. '인천 개항장 근대 건축전시관'에는 개항 당시의 상황과 인천항의 모습, 당시의 건축물들이 축소 모형으로 전시돼 있다. 중앙프라자 건물 앞에서 오른쪽으로 접어들어 가다가 왼쪽으로 들어서 100여m를 이동하면 오른쪽에 옛 인천우체국 건물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실제 우리나라 우정 업무의 효시가 된 곳으로 동양과 서양의 건축양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탐동 사거리에서 신포지하상가를 통과해 나오면 오른쪽 가톨릭회관 뒤쪽에 코스의 마지막 목적지인 탐동성당이 나타난다. 1897년에 세워진 고딕 양식 성당으로 지금의 모습은 1933년 옛 건물을 보존하면서 외관을 벽돌로 쌓아올린 로마네스크 양식이다.



신포 문화의 거리 근대 건축물 탐방 거리의 마지막 지점인 탐동성당 길 건너편에 위치한 신포 문화의 거리는 패션, 문화, 역사, 먹을거리 등 다양한 특징을 품은 거리로 인천의 명동'이나 '신포 로데오 거리'로 불리는 곳이다. 이 코스는 크게 패션 거리와 신포재래시장으로 나뉜다. 패션 거리는 경동사거리에서 서쪽의 중구청 방향으로 이어지다가 남쪽의 우체국 사거리 방향으로 연결되는데, 길 양쪽으로는 트렌디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부터 말끔한 스타일의 정장까지 옷, 구두, 가방,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들이 늘어서 있다. 한편 신포재래시장에서는 짬뽕, 순대, 양념통닭, 칼국수 등 인천을 대표하는 먹을거리를 맛볼 수 있고, 옷가게와 분식점, 수예점, 양화점, 방앗간 등이 있어 먹고 보는 즐거움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자유공원 서울 탐골공원보다 9년 앞선 1888년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은 인천항과 인천대교가 있는 서해 바다의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응봉산 정상에 조성된 자유공원에는 인천상륙작전의 시발이 된 월미도를 바라보는 맥아더 장군의 동상과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탑 등이 남아 있다. 맥아더 동상 바로 아래쪽에는 벽돌로 지은 2층 건물의 '제물포 구락부'가 위치하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던 영·미·독·러·일본인들의 사교장으로, 해방 후에는 미군 장교 클럽, 휴전 후에는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변신했고, 최근까지 인천문화원으로 사용되다 2007년 제물포 구락부로 재탄생했다. 자유공원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 인천의 남·북간 교통 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공병대가 1908년 준공한 아치형의 흥예문이 자리하고, 코스의 동쪽 끝에는 1890년 설립된 중후한 중세풍의 석조 교회당인 대한성공회 인천 내동교회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소요 시간 1시간~3시간 30분. 도보관광 코스 차이나타운 1패루□공화춘□인천 화교 중산학교□조계경계석□대불호텔□은행 거리□중구청□제물포 구락부□자유공원. 모임 장소 인천역, 중구청, 한중문화관 등 신청자가 선정 문의 www.icjg.go.kr, 032-760-7824



부산 항구도시의 낭만과 자유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은 해안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다. 부산시는 바다의 경치와 항구도시의 낭만, 영화 도시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며 1~2시간 정도 도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14개 코스를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부산에서는 별도의 관광안내원이나 해설사 없이 혼자서 주요 도보 여행 코스를 돌아볼 수 있는 'u-투어가이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손바닥만 한 PDA 단말기를 관광안내소에서 대여하면 자신의 위치가 표시되고, 도보 코스도 혼자 힘으로 찾아갈 수 있으며, 주요 볼거리도 놓치지 않게 된다.

'u-투어가이드'는 김해공항과 국제여객터미널, 부산역, 해운대, 수영 등의 관광안내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신분 확인과 단말기 정보 입력 후 대여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1일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문의 051-888-8251



태종대 코스

코스가 시작되는 태종대는 부산 영도의 남동쪽 끝에 위치한 해발고도 200m 이하의 구릉 지역으로, 부산 일대에서 보기 드문 울창한 숲과 기암괴석의 해식절벽, 푸른 바다가 조화를 이룬 곳이다. 이곳에서는 바다에 접점이 뜬 오륙도를 볼 수 있고, 날씨가 맑은 날에는 56km 떨어져 있는 쓰시마 섬도 희미하게나마 보인다.

태종대에서 영도 등대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300여m에 걸쳐 관목이 우거진 곳곳에 야생화 110여 종이 피어 있는 자연학습 관찰로를 지나며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이후 바닷가의 가파른 해안절벽에는 1906년에 부산의 첫 유인 등대로 건설된 영도등대가 자리한다. 대한제국 세관공사부 등대국에서 설치한 이 등대는 등대 건물의 인편은 물론, 옥상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바닷가 풍경을 감상하는 전망대로 그만이다.

파도에 자갈들이 부딪히며 구르는 소리가 미소를 짓게 하는 자갈마당을 지나 발걸음 옮기다 보면 편평한 암반 위에 외로이 서 있는 망부석을 볼 수 있다. 이 망부석에는 고려 때 왜구에 끌려간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던 여인이 돌로 변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태종대 순환관광도로 중간에는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다. 전망대는 바다를 향해 돌출한 일명 '자살바위' 자리에 설치된 것으로 전망대에서는 오륙도가 내려다보인다. 한쪽에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상이 있다. 코스의 마지막은 남항 조망지이다. 이곳에서는 부산의 대표항인 부산 남항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 아간에는 부산 남항과 송도 일원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PIFF(부산국제영화제) 광장' 코스

부산시 중구 남포동, 부평동 일원의 PIFF 광장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중심 무대로 주변으로 국도극장 예술관, 부산극장, 대영시네마, CGV남포극장 등의 영화관들이 들어서 있는 시네마 천국이다.

PIFF 광장에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있을 때마다 유명 영화인들이 찍은 핸드프린팅이 바닥에 남아 있다. 한국 영화 최초의 킬트로 불리는 고 김기영 감독을 비롯해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로 유명한 이만희 감독의 살아 있는 전설, 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 일본의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 등 유명 영화인들의 손 모양과 사인이 광장 바닥을 채우고 있다.

핸드프린팅 거리를 지나 왼쪽으로 가면 노점상들이 손수레에 아가자기한 장신구를 진열해 판매하는 액세서리 골목이 나타난다. 또 조금 발걸음을 옮기면 전자제품부터 음향기기, 의류, 신발, 귀금속 등 없는 게 없다는 '만물의 거리'가 나온다. 이 거리는 그저 지나가며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곳이다.

인근에는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장사를 시작하면서 형성되어 각종 밀수 외국상품이 판매됐던 국제시장이 있다. 서울 남대문 시장과 분위기가 비슷한 곳으로 식품, 농·수·축산물, 공산품 등의 점포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다. 가방, 문구, 공예품, 주방기구, 철기, 안경, 침구류, 포목, 주단, 양단, 가전제품, 기계공구 등을 사고파는 거대 재래시장의 분위기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다.



'해운대, 동백섬/누리마루' 코스

부산의 명소 해운대 해수욕장에 자리한 부산 조선호텔 뒤쪽에서 코스가 시작된다. 동백섬은 최치원을 비롯한 많은 시인과 묵객들이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절경을 찾아 감흥을 시로 읊었던 곳으로 섬에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건너편 미포 쪽의 해안 끝과 달맞이 언덕, 유려한 곡선으로 바다와 하늘을 가로지르는 광안대교, 섬들이 보는 위치에 따라 개수가 달라지는 오륙도 등을 감상할 수 있다.

파도가 부딪히는 산책로 주변에서는 최치원의 해운대 각자, 동상, 시비를 비롯해 인어상도 볼 수 있다. 최치원 동상이 있는 곳에서는 비 내리는 가을밤의 심상을 표현한 '추야우중(秋夜雨中)', '봄 새벽', '윤주의 자화사에 올라' 등의 시 3수를 읽으며 풍류에 젖을 수도 있다.

오륙도 앞에서 고깃배가 들어오는 서정적인 풍경에 젖다 보면 2005년 APEC 정상회의가 열렸던 누리마루에 닿는다. 정자를 본떠 만든 건물로 내부에서는 정상회의 당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운이 좋으면 육지 쪽으로 향하는 길에 바다 속에서 해산물을 캐는 해녀들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자갈치 시장' 코스

부산의 아침을 가장 먼저 여는 곳은 자갈치 시장이다. 이곳에서는 자갈치 어지매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흥겹고도 구수한 사투리를 들을 수 있다.

도보 여행 코스에서는 자갈치의 대형 회 센터 두 곳 중 하나인 신동아 수산물 종합시장을 가장 먼저 들른다. 종합시장의 1층에는 활어, 전복 등 어패류 점포 180여 개가 있고, 2층에는 각종 건어물을 판매하는 가게가 들어서 있다. 특히 지하의 음식 센터에서는 자갈치 시장의 신선한 재료에 부산 특유의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진 양곱창과 곰장어를 맛볼



수 있다.

신동아 수산물 종합시장을 둘러본 후에는 바닷가의 자갈치 어판장으로 향한다. 바다에서 막 잡아온 활어가 거래되는 곳으로, 건물 1층은 어시장, 2층은 건어물 시장이며, 회 센터도 있다.

싱싱한 해산물을 구경하며 해안가를 걷다 보면 동쪽 끝에 건어물 도매 시장이 나타난다. 200여 개 점포에서는 마른 멸치를 비롯해 오징어, 새우, 각종 포 등 건어물과 김, 미역, 조개 등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건어물 시장 옆으로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가족의 생사를 알고 싶어 답답한 심정을 점쟁이들에게 쏟아냈던 점바치 골목을 지나면 코스의 마지막 목적지인 남포동과 영도를 연결하는 영도다리이다. 영도다리 부근에서는 옛날 도개식 영도대교의 역사적 사실을 전하기 위한 '도개식 영도대교 기념비'와 6.25 당시 피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었던 노래 '군세어라 금순야'를 불렀던 '현인 노래비' 등을 볼 수 있다.



대구 역사와 문화 들려주는 골목 투어

대구시 중구청은 도심 골목을 문화해설사와 함께 돌며 대구 100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골목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골목 투어는 올해 말까지 매달 셋째 주 목요일과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현재 '달구벌 그때 그 시절' 과 '근대문화의 발자취' 코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반응이 좋으면 남성로(약령시)~동성로~교동 귀금속거리~서문시장을 도는 '축제의 거리' 코스와 국제보상공원~야시골목~봉산문화거리~대구향교~건들바위로 이어지는 '젊음과 예술의 거리' 코스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gu.jung.daegu.kr, 053-661-2194

달구벌 그때 그 시절 코스

400년 전부터 근대를 거쳐 50여 년 이전까지 대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옛 향기가 물어내는 코스이다. 도보 관광이 시작되는 '경상감영공원' 은 400년 전 대구로 옮겨온 경상감영이 자리했던 곳으로 현재는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공원에는 관찰사가 공무를 집행하던 경청신 선화당과 관찰사의 처소였던 징청각, 관찰사의 처치를 담은 선정비, 측우기 받침대 등이 있으며, 4~10월 매주 토요일에는 경상감영 풍속 재연 행사가 펼쳐진다.



경상감영공원에서 중앙로 방향으로 걸음을 조금 옮기면 일제강점기에 한강 이남에서는 최고의 유흥가였던 향촌동이다. 당시 이곳에는 소설가 최태운, 화가 이중섭, 음악가 권태호 등이 사랑방처럼 드나들며 술을 마셨던 '곤도주점' 이 있었고, 한국 클래식 감상실의 원조로 이창수 씨가 1946년 문을 연 '녹향' 음악실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다. 시인 구상과 수필가 마해송이 묵었던 당시 고급 호텔인 화월여관터를 지나면 화가 이중섭이 담배 은박지를 캔버스 삼아 그림을 그렸던 '백록다방' 과 대구 최초의 목욕탕인 '조일탕' 터도 만나게 된다. 향촌동 문인거리를 빠져나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우현서루 옛터가 나타난다. 시인 이상화의 조부인 이동진 선생이 사재를 털어 창설한 학숙으로 장지연, 박은식, 이동휘, 조성환 등 이곳을 거친 이들을 150명이 넘는다. 우현서루 옛터에서 다시 서쪽으로 이동해 달성로에 닿으면 오른쪽에는 삼성의 전신인 삼성상회의 옛터가 자리한다. 1938년 설립돼 해방 이후 서울로 옮겨갈 때까지 직원 40여 명이 머무르며 일했던 곳이다.

도보 거리 2km 소요 시간 2시간 만남 장소 경상감영공원 앞(9시 40분까지 도착)
 도보 코스 경상감영공원▶향촌동▶대구역▶종로초등학교▶달서문▶삼유회관▶오토바이 골목▶삼성상회▶달성공원



근대문화의 발자취 코스

달구벌 그때 그 시절 코스 남쪽으로는 100년 전 대구의 역사가 깃든 '근대문화의 발자취' 코스가 자리한다. '달구벌 그때 그 시절' 코스에서는 실제 옛날의 모습을 보기 어렵지만 이곳에는 옛날의 모습이 비교적 남아 있어 더 흥미롭다. 코스는 대구 선교사들이 활동했던 동산 일대에서 시작한다. 이곳은 대구에 정착한 선교사들이 계성학교, 신명학교, 제중원(현 동산의료원), 선교사 주택을 지으며 선교 활동을 펼쳤던 곳으로 대구에서 유일하게 서양식 정원과 잔디밭을 가진 건물들을 볼 수 있다. 동산 일대에서 동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1902년 영남 최초의 고딕식 건물로 준공된 계산성당이 나타난다. 이 건물은 야간에 은은한 조명이 들어와 아름다움을 뽐낸다. 계산성당 인근에는 일제강점기에 저항시를 썼던 시인 이상화, 대구 최초의 서양화가인 이상정, 국제보상공원의 주역이었던 서상돈의 기와 고택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고택의 동쪽으로는 흥미로운 골목들이 얼기설기 이어져 있다. 일본식 건물에 한의원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약전골목, 떡과 어패류, 과일, 죽, 채소 등을 취급하는 염매시장과 떡집골목, 중앙시네마 뒤편의 부유한 달성 서씨들의 한옥이 그대로 남아 있는 진골목 등을 돌아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도보 거리 1.7km 소요 시간 2시간 만남 장소 선교박물관 앞(9시 40분까지 도착)
 도보 코스 동산선교사 주택▶3·1운동길▶계산성당▶이상화·서상돈 고택▶성밖 골목▶제일교회▶염매시장▶종로▶진골목

